다시, 녹화

창가에 사진기를 세우고
셋을 세면 웃음이 터져
다시 찍자 말해 놓고
우린 그 장면을 남겼지
하나 둘 셋, 안녕 친구야
웃음까지 가져가
보고 싶은 날엔 우리
그 장면에서 만나